

# 스페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5

## I. 일반개황

면적	505천 km <sup>2</sup>	G D P	13,493억 달러 (2012년)
인구	46.75백만명 (2012년)	1 인 당 GDP	32,610달러 (2012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달러당)	0.78

- 스페인은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포르투갈, 안도라 및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약 47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스페인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업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은행 부실채권 증가 및 금융부실의 심화로 스페인 은행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2012년 6월 1,000억 유로의 은행부문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실은행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음.
- 2011년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국민당(PP)이 좌파성향의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하지만 2013년 1월 집권 국민당의 전 재무담당자 발언을 통해 라호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의 부패스캔들이 불거지며 정국이 혼란에 빠짐.
- 스페인은 198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6년 EU 및 2002년 유로존에 가입함.

## II. 경제동향

### 1.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스페인 경제의 주요 성장 모멘텀인 주택 및 건설 부문의 부진

- 주택 및 건설 부문은 GDP의 16%, 전체 고용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금융위기 이전 1997~2007년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3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2~ 2005년 기간 중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5%로 유로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부문이 붕괴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부동산 연계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실이 발생하여 금융권이 극심한 타격을 입음.
- 가계자산의 약 79%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계자산에 직접적인 부(-)의 효과를 가져와 민간 소비 감소로 이어짐.

##### □ 스페인 금융부문의 유동성 부족현상에 따른 구제금융 신청

- 스페인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붕괴에 따른 은행부실채권 증가, 금융부실 심화 등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음.
- 스페인 정부는 2009년부터 은행구조조정기금(Fund for Orderly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 FROB)을 조성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
  - 스페인 정부는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없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구조조정기구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되 은행의 비핵심 자산 매각, 운용규모 축소 같은 구조조정을 요구함.
- 스페인 정부는 건설업 거품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부문의 기능강화를 위해 2012년 6월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로부터 1,000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370억 유로를 국유화된 부실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함.

- \* 해당 금융지원 자금은 은행구조조정펀드가 수령해 민간 부실은행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긴축 부담을 수반하지 않음.
-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유럽은행들에 대해 2012년 6월 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Capital Ratio)을 9% 이상 충족시킬 것을 요구함.
-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유럽연합과 맺은 이행계획에 따라 방키아, NCG방코, 카탈루냐 방코, 방코데발렌시아, 방코 갈레고 등 5곳의 국유화 은행은 인수 합병, 2017년까지 자산 60% 이상 축소, 사업구조조정 등의 구제금융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이에 따라 국유화된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방키아 은행의 보통주 명목 금액이 2유로에서 0.01유로로 대폭 상각되고, 자본 구조조정을 위해 48억 4,000만 유로의 우선주 및 후순위 채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겨줄 전망
- 스페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한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지원 요청을 한다면, 스페인 단기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이 가능함을 2012년 9월 선언

####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스페인은 유럽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2년 기준 유럽경제권이 스페인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이상이며, 특히, 대 프랑스 및 독일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10% 이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스페인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 \* 주요 수출대상국('12): 프랑스(16.8%), 독일(10.8%), 이탈리아(7.7%), 포르투갈(7.1%), 영국(6.5%)
- \* 주요 수입대상국('12): 독일(11.8%), 프랑스(11.5%), 이탈리아(6.7%), 중국(5.6%), 네덜란드(5.4%), 영국(4.1%)

## □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제조업 기반 취약

- 스페인은 2000년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임금 상승, 신흥시장국 부상에 따른 섬유, 의복 및 가죽 등 전통적 수출 주력업종의 사양화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부동산 거품붕괴 이전까지 건설업,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 투자함.

\* 2011년 기준 스페인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14.6%로 유로존 평균치인 17.4%(독일 25.1%)에 비해 낮으며, 건설업 비중은 12.4%로 유로존 평균치의 2배에 달함.

## 나. 성장 잠재력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세 후퇴

- 스페인은 1997~2007년 평균 3.8%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 9위 경제대국(2008년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됨에 따라 2009~2010, 2012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13위로 내려앉음.
-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의약분야의 수출 증가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한 0.4%를 기록하였으나 고실업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활동 감소 및 은행의 대출감소 등에 따라 2012년(-1.4%)에 이어 2013년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상반기 스페인을 방문한 총외국인 방문객 수는 3,40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수익은 244억 유로로 6.6% 증가
- 스페인 관광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한 달에만 790만명이 스페인을 찾아, 1995년 이후 한 달 최다 관광객 수를 경신하였음. 관광업계에서 스페인의 라이벌로 꼽히는 이집트와 터키가 정정불안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힘.

- 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0%, 고용의 11%로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 기업경영여건 평가 순위,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스페인은 2012년 42/185위에서 2013년 44/183위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업경영여건이 여전히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사업개시(136위), 전력확보(70위), 투자자보호(100위) 등의 평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이며, 건설허가처리(38위), 세금납부(34위), 통관행정분야(39위), 지급불능해소(20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획득

#### 다. 정책성과

##### □ 재정수지 적자 목표달성 시한 2년 연장

- EU집행위는 스페인을 비롯한 6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3% 달성 목표 시한을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6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스페인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 시한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
- 스페인은 2012년에도 재정적자 감축시한이 한 번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2013년 목표 재정적자는 GDP 대비 6.5% 수준\*으로 시한 연장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

\* 2013년 -6.5% → 2014년 -5.8% → 2015년 -4.2% → 2016년 -2.8%

##### □ 부실화된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노력 지속

-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2007 ~ 2011년 기간 중 부실채권 규모가 9배나 증가하며 시스템 위협으로 확산.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09년 6월 990억 유로\* 규모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함.
- \* 990억 유로의 금액 중 저축은행 민간대출 부실이 600억 유로, 일반 상업은행의 부실여신이 102억 유로 등임.

- 스페인 정부는 2010년 5월 카하수르 저축은행을 국유화한데 이어 2012년 5월 부실은행인 방키아(2010년 12월 7개의 부실화된 저축은행 합병하여 설립)를 44.7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국유화하는 등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합병 및 국유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함.
- 2012년 6월 스페인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이 라호이 내각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 상향조정에 의해 2012년 3월 초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에 대해 19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실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2012년 6월 1,000억 유로의 은행부문 구제금융을 신청함.
- 2012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은행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자산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2012년 2월의 조치로 토지 및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한 충당금적립비율을 각각 80%, 65%로 인상하였으며, 5월에는 충당금 확충을 한 단계 진전시켜 정상 부동산대출에 7%를 쌓기로 한 일반충당금 적립비율을 30%로 확대함.
- 스페인은 유로존 여타 구제금융회원국에 비해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구제금융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 신청규모가 1,000억 유로에 달해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

####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00 ~ 2004년 스페인의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건설업 활황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함.
-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11.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EU 집행위의 권고에 따라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5.3%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7%의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며,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한 바 있음.
- 2013년 2분기 스페인의 정부채무가 9,430억 유로로 GDP의 92.2%에 달해, 2013년 목표 91.4%를 이미 넘어서는 등 재정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크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00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여 2013년 재정수지 적자를 전년도 10.7%에서 6.5%까지 낮춘다는 계획

- 스페인은 국가권력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된 가운데 전체 공공지출에서 17개의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며, 지방정부의 지출은 주로 의료(26%), 교육(19%)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스페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감축기준을 지키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집권 국민당이 17개 지방정부 중 11개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카탈루냐 및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

#### □ 2013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

- 2007년 이후 관광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 10%에서 2012년 1.1%까지 축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GDP 대비 약 0.1%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
- 최근의 경상수지 개선 추세는 주로 자동차 및 의약 분야의 순수출 증가와 관광산업 호조에 기인하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스페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의 생산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11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PP)의 승리로 정권교체

- 2011년 11월 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결과, 중도우파성향의 국민당(PP)이 오랜 집권당이었던 좌파성향의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7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음 총선이 있는 2015년 말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민당(PP)은 전체의회 의석 350석 중 186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사회당은 110석을 차지하는데 그침.



- 2013년 초반 불거진 라호이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유력인사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라호이 총리에 대한 사퇴압력이 커지는 등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에 국민당은 정정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

-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분배 받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며, 카탈루냐 주민들은 향토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고유의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진 중임.
- 750만 카탈루냐 주민의 절반 가량이 분리독립에 찬성하고 있으며, 아르투르 마스 카탈리냐 주지사가 이끄는 카탈루냐통합당(CiU)은 2014년에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투표는 중앙정부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위헌 제소 등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스페인 경제 위기 이후 분리독립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2013년 9월 카탈루냐 주민 40만명이 모여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400km 길이의 인간 사슬을 만드는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2012년 11월 카탈루냐 의회 조기총선 결과 카탈루냐통합당은 총 135석 중 50석만을 차지하는 데 그침으로써 마스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독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나, 카탈루냐공화당을 포함한 분리 독립 성향의 정당들이 총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분리독립 문제는 여전히 주요 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

#### □ 집권 국민당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정 불안

- 2013년 1월 집권 국민당의 전 재무담당자 루이스 바르세나스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2,200만 유로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스페인 유력 일간지를 통해 알려지며, 국민당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 및 주요 인사들의 정치자금 착복에 대한 스캔들이 불거짐.

- 바르세나스의 진술에 따라 라호이 총리 또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35회에 걸쳐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현 정부가 지난 선거 결과에 따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안정적 국정운영이 기대되었으나, 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정불안 및 이에 따른 정치 이슈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 약화 및 긴축재정과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안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어 스페인 경제가 재차 위기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상존**

- 국가권력의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재정긴축 계획실행이 어려우며 스페인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지출을 지나치게 줄여, 시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를 비판
- 2012년 3월 25일 안달루시아 및 아스투리아스 주의 지방선거 결과 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국민당이 다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 1978년 헌법을 개정하여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빈발**

- 스페인 정부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축정책 및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
- 2011년 5월 강도 높은 공무원·공기업 급여 5% 삭감 및 임금동결, 연금지급액 동결, 육아복지 수당폐지, 해외원조액 삭감 긴축안 발표에 반대하는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난 데 이어, 2011년 11월 긴축정책으로 인한 의료, 교육 등 사회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2012년 4월에는 교육예산 100억 유로와 보건예산 70억 유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긴축안에 반대하여 스페인의 55개 도시에서 시민 4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5월에도 스페인 전역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노동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남.
-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2013년 1분기 실업률이 27.2%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2.0%를 기록하는 등 재정지출 삭감과 복지혜택 축소로 대변되는 긴축정책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및 관련산업의 침체 및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2009년 11.3%, 2010년 20.1%, 2011년 21.6%, 2012년 24.4%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에 있음.

\* 실업률 변동추이: 11.3%(2008)→18.0%(2009)→20.1%(2010)→21.6%(2011)→24.4%(2012)

- 2013년 들어 1분기 실업률이 27.2%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 실업률은 26.3%로 전분기 대비 0.9% 포인트 하락. 이를 두고 스페인 경기회복 신호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으나, 여름철 관광수요 증가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한편, 최근 발표된 2013년 8월 실업률은 26.2%로 소폭 하락함.
-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 및 관련 산업의 침체로 저숙련 청년층이 대거 해고됨에 따라 2013년 8월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56.1%로,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이는 향후 범죄증가나 폭동으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증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률 악화는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와 종국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3. 국제 관계

#### □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주는 대외정책 표방

- 스페인정부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EU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은행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스페인 정부의 외채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유사 국유화로 양국간 긴장 고조

-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과 경제 및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2012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대 정유사인 YPF(스페인 기업자본 57% 보유)를 국유화함에 따라 스페인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 영국령 지브롤터\* 영유권 분쟁으로 영국과 불편한 관계 유지

- 지브롤터 해역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주민 2명에게 스페인 해경이 고무탄 4발을 발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외교 분쟁으로 확대됨.
  - 주민들은 스페인과의 해상분계선을 넘은 적이 없음에도 해경 경비정이 쫓아와 발포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지브롤터 당국은 2013년 7월 어류 서식처 조성을 명분으로 바닷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며 충돌이 본격화됨.
  - 스페인 정부는 구조물 설치를 자국 어선의 어로를 막으려는 조치로 간주하고, 주민 상당수가 스페인 일터로 출퇴근하는 지브롤터 국경의 세관 검색을 강화함.
  - 이후, 영국·스페인 정상 간의 긴급 통화로 갈등이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영국 함대의 지브롤터 해상 훈련 계획이 알려지며 갈등이 다시 불거짐. 스페인은 유엔을 통한 영유권 문제 해결 방안 검토 및 포클랜드 섬을 두고 영국과 갈등 중인 아르헨티나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스페인의 국경 통제 행위가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 유럽연합 규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

- \* 스페인 남쪽 끝에 위치한 지브롤터는 지중해 요충지로 300년 전 스페인의 패전으로 영국에 할양된 바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스페인 정부 채무는 2013년 GDP 대비 9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스페인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2008년 40.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84.1%로 불과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실업률 상승과 이에 따른 세수입 감소 및 복지 비용 증가로 GDP 대비 정부채무가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스페인 정부채무는 94백만 유로로 GDP 대비 92.2%를 기록

\* GDP 대비 정부채무 : 40.2%(2008) → 53.9%(2009) → 61.5%(2010) → 69.3%(2011)  
→ 84.1%(2012)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 기관의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 평가 추이

- S&P: AA('10.4월)→AA-('11.10월)→A('12.1월)→BBB+('12.4월)→BBB-('12.10월)

- Moody's: Aa2('11.3월)→A1('11.10월)→A3('12.2월)→Baa3('12.6월)

- Fitch: AA+('11.3월)→AA-('11.10월)→A('12.1월)→BBB('12.6월)

- S&P는 2010년 4월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2011년 10월 AA-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A로 두 단계 하향조정함. 이어서 2012년 4월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악화 가능성, 노동시장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두 단계 강등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도 BBB-로 두 단계 강등함.

- Moody's는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11년 3월 Aa1에서 Aa2로, 2011년 10월 A1로 하향조정한 이후, 2012년 2월 추가적으로 A3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2012년 6월 12일 스페인이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다음날인 6월 13일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되면 정부부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아, 스페인 신용등급을 Baa3로 3단계 강등하였으며, 이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임.
- Fitch는 2011년 3월과 10월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AA+에서 AA-로 각각 두단계 하향 조정함. 이후 2012년 6월에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스페인의 정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3단계 하락한 BBB로 강등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3.10.)	C1 (2012.7.)
OECD <sup>주)</sup>	0등급 (2012.1.)	0등급 (2011.1.)
S&P	BBB- (2012.10.)	BBB+ (2012.4.)
Moody's	Baa3 (2012.6.)	A3 (2012.2.)
Fitch	BBB (2012.6.)	A (2012.1.)

주) OECD는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가입국이며 세계은행 분류 고속득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0등급을 부여함.

**□ 국채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

- 2010년 3월 평균 3.9%를 기록한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점차 상승하여 2010년 12월 들어 5%대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2012년 6월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1,000억 유로 구제금융 소식으로 6%대까지 치솟음. 국채금리는 2012년 7월 24일 최대 7.62%를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2013년 9월말 현재 4.30%까지 하락한 상태임.
- 스페인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08년 9월 이전에는 30bp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9년 2월 최대 169bp를 기록함. 이후 2009년 8월까지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 8월 54bp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12년 7월 641bp까지 치솟았으나, 2013년 9월 현재 200bp 대 수준에서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전액 인수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0년 3월 17일 (북한과는 미수교)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문화, 과학 및 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 - 스페인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 과학기술협력기본협정('75), 문화협정('77),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범죄인인도조약, 경제협력협정(이상 '94), 군사비밀보호협정('09), 사회보장협정('11)

□ 2012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스페인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2011년 30.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경기침체 이전인 2008년 43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임. 이후 201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9.6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기록함.

- 스페인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9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스페인 교역규모 추이

- : 43.2억달러(2008)→26.1억 달러(2009)→28.1억 달러(2010)→30.2억 달러(2011)→29.6억 달러(2012)

□ 대 스페인 직접투자 실적(2013년 6월말): 52건(신규법인 수), 842백만달러(투자액)

-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직접투자 실적은 2009년 114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재정긴축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펀더멘탈 강화로 2012년 352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

- 투자실적(연중): 114백만 달러(2009) → 56백만 달러(2010) → 48백만 달러(2011) → 352백만 달러(2012년)

<표 2> 한·스페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858	1,857	1,668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수 입	955	1,162	1,293	석유제품, 농약 및 의약품, 기타 금속광물
합 계	2,813	3,019	2,9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 하 신용팽창에 의해 형성됐던 스페인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됨에 따라 은행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함. 스페인 정부는 부실은행 구제방안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저축은행을 국유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부실화된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유로안정화기구로부터 1,000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받은 바 있음.
- 스페인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긴축안을 내놓았으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악화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및 국민들의 저항 등으로 단기간 내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최근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하였음. 한편,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및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청년실업률이 50%를 넘는 점 등은 스페인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mailto:sejin0302@koreaexim.go.kr)